

종합·해설

이회창 무소속 대선 출마 선언

도전과 한계

한 "촛 제2의 이인제"

"대권병" "정상배" 맹비난

대권 3수를 보는 눈... 국민 여론이 변수

'동정론' 영남표 우군... 보수 분열 비난 부담 지지율·BBK 수사 따라 행보 달라질 수도

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7일 결국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. 이에 따라 41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.

당장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 구도로 진행됐던 대선 구도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.

이 전 총재의 출마에도 한나라당이 후보의 지지율은 40% 안팎을 기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경준씨가 이달 중순께 귀국할 예정이라는 점은 대선 판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.

별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이 전 총재의 역전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 본격적인 출마설이 나오지 단 2주만에 지지율이 20%대를 상회하고 있는 데다 검찰의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가 이 후보에 불리하게 나오면 이 전 총재가 보수세력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여기에 이 전 총재가 한나라당의 전통적 '우군'인 보수층과 영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.

그러나 이 전 총재가 건너야 할 산과 바다는 험하고 넓다. 이 전 총재의 출마가 지난 1997년

이인제 후보 탈당, 보수진영 분열, 대선 패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.

여기에 지난 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거꾸 패한 뒤 정계은퇴를 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경선을 거치지 않고, 대선 목전에 탈당을 통해 대권도전에 나선 것도 큰 변수에서 '경선 불복'이라는 점도 이 전 총재에게는 부담이다.

특히, 이 전 총재의 3번째 대선 출마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. 이각에서는 이 전 총재가 이미 두 차례의 대선에서 자식의 병역문제 등으로 패했기 때문에 충분한 '대가'를 치렀다는 유권자들의 동정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.

하지만 대선 잔금 문제 등이 전 총재의 아킬레스건은 여전히 노출돼 있는 만큼 이명박 후보를 압도할 여분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.

정치권에서는 대체로 후보 등록 시점인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내달 초반에는 대선 구도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이달 중순 김경준 전 BBK 대표가 귀국하고 대선 후보 등록 직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판세가 가늠지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.

이명박 후보가 정치적 고비를 넘기고 지지율 35%선을 지킬 경우 유권자들의 '전략적 선택'



장고 끝에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7일 오후 제17대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남대문로 단양빌딩으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. /연합뉴스

에 따라 이 후보쪽으로 '쏠림'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.

특히, 이 전 총재가 국민중심당, 이수성 총리 그룹 등 중도보수 성향의 외부인사 영입에 성공하면서 보수대연합을 구축한다면 상당한 파급 효과를 얻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.

또한, 이 후보가 30%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이 전 총재가 20%대 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인다면 보수 후보간의 단일화는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대선 구도는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.

특히, 이 과정에서 '박근혜 변수'와 '범여권 변수'도 무시할 수 없다.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이 전 총재로 향하고 있고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에 따른 승수 효과도 가능하기 힘들다.

정치권 관계자는 "이 전 총재는 출마 선언으로 당분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지지율 상승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"며 "당장 관건은 이 전 총재의 지지율 30% 돌파 여부며 이후 김경준씨 귀국과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/임동욱 기자 tuim@kwangju.co.kr

한나라당은 이회창 전 총재가 7일 오후 끝내 탈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'배신감'과 '분노'를 표출하는 등 격동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.

특히 당내에선 '제2의 이인제' '악덕 장의사' '대족이 아닌 갈대' '정상배' '기회주의자' '새치기' '썩은 단지' '대권병에 걸린 사람' '쿠데타적 발상' 등의 격한 표현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.

이 전 총재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한마디로 이 전 총재 성토대회였다.

강 대표는 "이 전 총재의 출마는 정치지도도 원칙도 아니다"라면서 "앞으로 내가 스승인 이 전 총재를 향해 샷대질을 하고 싸워야 하는데 이런 비참한 세상을 만든 게 바로 이 전 총재 자신"이라고 비판했다.

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"이 전 총재의 대선출마는 엄연히 경선 결과에 불복한 것이자 정당정치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불법, 변칙 행위"라면서 "왜 경선불복으로 제2의 이인제가 되려고 하느냐, 은퇴한

복으로 왜 제2의 김대중이 되려고 하느냐"고 반문했다.

의원들도 당 홈페이지 등에 개별 성명을 내고 '이회창 때리기' 대열에 동참했다. 당 중심모임을 이끌고 있는 맹형규 의원은 "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반민주적 행태"라면서 "이 전 총재는 후세에게 어떤 논리로 민주주의의 절차와 정도의 원칙을 설명할지 이에 대한 답부터 해야한다"고 말했다.

박계동 의원은 "마치 동지가 아플 때 돈을 벌려고 빨리 죽기를 바라며 서성이는 장의사와 같은 느낌이다.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정상배, 이 전 총재는 즉각 사퇴하라"고 촉구했다.

사투처 당직자들도 성명을 내고 "이 전 총재는 결국 원칙을 뒤집는 갈대인이 입증됐다. 우리는 이명박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한나라당은 앞으로 이 전 총재 출마의 부담성을 알리는 특별당보를 제작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기로 했다.

/연합뉴스

"촛 두번 대선 실패는 도덕적 심판 받은 것"

청와대, 출마선언 비판

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아마가의 이익없는 평가일 것"이라고 밝혔다.

청와대는 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대해 "지난 두번의 선거에서의 실패는 단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심판을 받은 것"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.

청와대는 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대해 "지난 두번의 선거에서의 실패는 단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심판을 받은 것"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.

천 대변인은 또 "자금의 대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정치의 원칙과 대의가 실종된 느낌"이라며 "선거 이후에도 또 중대한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됐다"면서 "이런 데도 다시 출마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특히 그는 이 전 총재의 아들 병역문제, '차떼기' 등 대선자금 수수 등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"이 전 총재가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 도덕적 문제가 거론됐고 이 때문에

아직은 혈혈단신, '실탄'도 문제

이흥주·강삼재·정인봉 등 도울 듯

■ 11월, 자금·조직·정책 어떻게

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생애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어떤 식으로 치를까. 1997년, 2002년의 대선 도전 때와 이번은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르다.

◇'실탄이 최고 문제' =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선거자금 문제다.

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정당 후보들과는 달리 선거전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다. 후원금을 모금할 방법도 없다.

그렇다고 이 전 총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많은 자금을 모아둔 것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. 이 전 총재가 2002년 대선 때 신고한 재산은 12억8천500만 원이었다.

이 전 총재의 한 측근은 "어차피 필마단기로 나섰기 때문에, 선거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일각에서는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서라도 창당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. 창당을 창당할 경우 소속 의원의 수에 따라 법정 선거보조비용이 조금이라도 나온다. 또 정당이 있을 경우 당비를 모을 수도 있다.

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및 최소한 5개 시·도당이 있어야 한다. 창당 기간은 최대한 빨리 할 경우 2주면 가능하

다는 관측이다.

◇'창의 시범' 돌아올 듯 = 이 전 총재 출마 이후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일지도 관심사다. 꾸준히 앞에서 보좌해온 이흥주 특보와 지상욱 박사, 수행비서인 이재관씨 등 가신그룹 외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합류할지가 관건인 것.

일단 이 전 총재 주변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난 두 차례의 대선 당시 이 전 총재를 안부으로 도왔던 인사들이 속속 모임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.

하지만 당장 정치권 내 인사들의 합류는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. 지난 두 번의 대선을 한나라당 후보로 치러 만큼 이 전 총재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과 어떤 형태로든 인연을 맺고 있지만, 이명박 후보가 압연히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친분이 두터운 한나라당 의원들이라 해도 내놓고 돕기는 어려운 실정이다.

양정규, 하순봉, 김기배, 신경식, 최동운 전 의원 등 2002년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로 구성된 '합력회'의 경우 이 전 총재 출마에 대한 찬반 기류가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출마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돌지 않았느냐는 관측이다.

강삼재 전 사무총장 역시 그를 도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. 정인봉 변호사와 '창사당'에 관여중인 백승홍 전 의원 등도 나설 전망이다. 경남지사를 지낸 김혁규 전 의원을 지난주 이 전 총재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.

◇'대북관 등 차별화-나머지는 2002년과 비슷할 듯' = 이 전 총재가 이번 대선에서 내놓을 공약은 2002년 자신이 내놓은 공약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측된다.

불과 대선까지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공약을 내놓기는 무리이기 때문이다.

/연합뉴스

산행안내

11월 10일(토)
▲백고두메산악회 송나 하동 성재봉 11월 10일(토) 07시20분 주원봉(동주면남대주자장정유)출발 T.010-7173-1816
▲광주금강산악회 고봉 발상산(회) 11월 10일(토) 07시30분 영주체육관(문예회관후문정유)출발 ※대근카페:광주금강산악회 T.017-603-4900, 011-624-8004
▲광주도요산악회 '구내' 성산재-이아골 11월 10일(토) 08시 광주역 http://cafe.daum.net/gwgsygyo T.011-608-4267, 011-634-2074
11월 11일(일)
▲나사오산악회 천남 강진 주석지 11월 11일(일) 06시30분 영주체육관(광주역, 문예회관정유)출발 http://cafe.daum.net/gwswesmo T.062-266-7223, 011-621-7201
▲광주산악회 정읍 대장산 중주 11월 11일(일) 07시30분 영주체육관(대인광장, 삼성출판사정유)출발 T.356-3612, 011-649-3612
▲한울산악회 정읍 대장산 11월 11일(일) 07시30분 국제호텔건너편 광주은행(문예회관후문정유)출발 ※네이버카페:한울산악회(예약,보험기부) T.011-645-3371, 011-635-9329
▲대천산악인명백광주영파인클럽 해남 두도산 11월 11일(일) 07시 하남하이마트(영주체육관, 비엔날레주차장정유)출발 T.010-9446-9874
▲광주한강산악회 화왕산 중주산행 11월 11일(일) 08시 광주역출발 http://cafe.empass.com/hangil T.222-3253, 010-7619-6559
▲광주거북이산악회 천북 정안 대장산 11월 11일(일) 08시 무등경기장전면 출발 http://cafe.daum.net/sjw T.017-602-0077, 011-602-3263
▲광주우라산악회 101차 북유산 중주산행 11월 11일(일) 08시 부각시 주차장(우암동휴플러스정유)출발 T.010-4600-1900, 011-635-8507
▲자연보존산악회 북부 11월 11일(일) 07시 무등경기장 출발 cafe.daum.net/AYNSAN T.011-666-3231
▲광주산강산악회 회광 시유산 11월 11일(일) 08시20분 문예회관후문출발 T.011-644-8200
▲요산회 지리산 남부3선 11월 11일(일) 07시30분 광주역 출발 T.016-611-1519
▲광주버두리산악회 천북 진안 구룡산 11월 11일(일) 08시 광주역 출발 ※네이버카페:광주버두리 T.011-640-0871
▲광주남부산악회 대장산일주 11월 11일(일) 08시 평리자, 1대앞 출발 ※준미분중적 빛산정유 T.011-609-3172, 016-609-0669
▲광주메리산악회 시리산 중산리 천황봉 대만시 11월 11일(일) 07시 시정(문예회관정전정유)출발 http://cafe.daum.net/meyv T.011-601-2891
▲삼각산악회 천북 대장산-평화시 11월 11일(일) 07시 영주4거리(영남시장, 광주역정유) 08시 888대 나스정유 출발 ※예약비 T.017-601-7633

전액국비수강생모집

컴퓨터

구분	교육과정	교육기간	개강
영세자영업자	기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	3개월	11월 1일
재직자 및 일반인	컴퓨터활용실무	2개월	11월 5일
	CAD	2개월	11월 1일
일반인	MOS(Master)	2개월	11월 5일
	정보통신실비	2개월	11월 1일
	정보처리	2개월	매월 초
	정보화기초1,2	5주	매월 초

11월 16일(금)
▲광성산악회 주왕산 백암 오미곶 중주 부산 11월 16일(금) 08시 광주역 (전월동해대마드정유)출발 T.011-629-2678, 011-601-8238
11월 17일(토)
▲광주도요산악회 남원 문막골, 교정봉 11월 17일(토) 08시 광주역(문예회관정유)출발 http://cafe.daum.net/gwgsygyo T.011-608-4267, 011-634-2044
11월 18일(일)
▲광주한미음산악회 경남 함천 가사산 11월 18일(일) 08시 광주역(문예회관정유)출발 T.010-4872-6225
▲호남산악회 전북 문장산, 안쪽지 11월 18일(일) 08시 광주역(문예회관정유)출발 ※다음카페:광주호남산악회 T.010-6246-7231, 011-605-5034
▲광주한빛산악회 11월 18일(일) 여수 풍황산-김오산 11월 18일(일) 07시30분 광주역광장(문예회관정유)출발 http://cafe.daum.net/062hanvit T.010-3131-3580
▲다음카페(사)오산요수산악회(정)정맥산 11월 18일(일) 08시 천대명원(영남실선사)하회3반중주(광주역, 문예회관정유)출발 T.011-620-2002

부동산실무

구분	교육과정	교육기간	개강
재직자 및 일반인	공인중개사	2개월	11월 12일
	주택관리사	2개월	11월 12일

※ 교육대상 : ■ 영세자영업자(연 매출 4800만원 미만)
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
■ 일반인 및 대학생

공인중개사,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!! (주간반, 야간반, 주말반)

☎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
현대직업전문학교
동부정시여 ☎224-4560, 232-1088 http://www.hdedu.co.kr

7·9급 공무원

행정+공안+기술직

전국 유일의 정통 권위 강사진 총출강!!

개강: 11월 15일 주·야(휴일)반 모집(정답정수제)

46년 전통의 無等은, 강의第一!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

www.mdgoal.co.kr ☎ 222-4560

11월 1일 대개강

전문대출연(예정자),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,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!!

개설과목: 영어, 수학, 상용, 화학, 유기화학, 물리, 한문, 한의약, TPFS

일반대 사범대 면접반 역대, 한의대 면접반

MEET/ DEET 기출문제 TPFS 최단기 고득점반

김영면임·PMS학원 (동부정시여) ☎ 227-8088

무등고시학원 (동부정시여)

☎ 222-4560